

LUXURY

December 2014



말연시를 위한 선물 171

Divas on the Stage

크리스마스를 위한 파티 테이블 5

음악의 평화, 수도원 기행

BVLGARI

art

담당 유선애 기자

40년 후에도 빛나는 간결한 아름다움! <도널드 저드> 1960년대 초부터 1994년 타계할 때까지 형태와 소재, 색채 표현에 몰두했던 설치미술작가 도널드 저드. 그가 왕성하게 활동했던 1970년대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의 주요 작품 13점을 소개하는 개인전이 11월 30일까지 국제갤러리에서 열린다. 합판, 철강, 콘크리트, 플렉시글라스와 알루미늄 등 산업 자재를 주제로 사용한 그의 작품은 30~4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간결하면서 현대적인 느낌이다. 요즘 유행하는 철제 소재의 모듈형 캐비닛과 선반 등 '인더스트리얼 가구'의 '원조'라 할 만큼 감각적이다. 1991년 선보인 붉은 알루미늄 상자 '무제'는 1960년 초기 형태로 회귀한 작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650cm에 달하는 보라색 알루미늄 작품 '연속'도 인상적이다. 문의 735-8449



(로널드 저드) 개인전 전경